



보도자료

영천
청도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

2019. 10.17(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 784-5901 / FAX: 02) 788-0302 / E-mail: yc20002@naver.com

한국 마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우범지대로 전락한 전국 30개 화상 경마장
- 최근 4년간(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 발생
- 동일 기간, 경찰 이첩 및 퇴장조치도 매년 증가세...

경마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전국 30개소)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장내폭행 및 소란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경마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년간 연도별 한국마사회 마권매출액 및 매출액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	
경마 공원	서울	15,963	20.60%	15,262	19.60%	15,050	20.00%	11,140	20.10%
	부경	4,268	5.50%	3,921	5.00%	3,818	5.10%	2,645	4.80%
	제주	3,724	4.80%	3,830	4.90%	3,426	4.50%	2,680	4.80%
장외발매소(30개소)		53,506	69.10%	54,999	70.50%	53,082	70.40%	38,916	70.30%
전체(계)		77,461	100%	78,012	100%	75,376	100%	55,381	100%

※'16년, '17년도 당시 장외발매소는 31개소('17년 12월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객실소란이 3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132건, 암표 51건, 절도 30건, 추행 19건등이 발생하였다.

<최근 4년간(2016~2019.9) 연도별 화상경마장 사건사고 현황>

연도	객장소란	마권분실	분실신고	암표	절도	직원폭언	추행	폭행	총합계
2016	83	3	2	17	12	4	7	54	182
2017	97	0	1	26	7	0	6	18	155
2018	104	1	3	6	4	9	3	24	154
2019.9	76	0	8	2	7	2	3	36	134
총합계	360	4	14	51	30	15	19	132	625

동일기간 업장별로는 영등포 화상경마장이 117건이 발생하여 최다 발생하였고, 종로(68건), 부천(46건), 일산(40건)순으로 사건이 많았다.

<화상경마장 지점별 사건사고 현황>

(단위 : 건)

	2016	2017	2018	2019	합계
강동	2	1	5	11	19
강북	1	7	18	11	37
광명	7	0	2	3	12
광주	13	5	3	1	22
구리	1	2	3	3	9
대구	8	3	7	7	25
대전	1	10	10	4	25
도봉	9	0	2	8	19
동대문	8	3	7	3	21
부산동구	0	3	2	5	10
부산연제	6	3	1	6	16
부천	10	26	10	0	46
분당	5	2	2	3	12
선릉	2	1	2	7	12
수원	3	0	0	3	6
시흥	0	0	2	7	9
안산	0	0	4	8	12
영등포	80	25	12	0	117

의정부	12	0	2	18	32
인천미추홀	0	0	0	4	4
인천부평	0	0	13	3	16
인천연수	0	2	2	3	7
인천중구	2	0	0	0	2
일산	3	5	25	7	40
종로	3	56	0	9	68
중랑	1	1	4	2	8
창원	2	0	0	3	5
천안	1	0	3	4	8
청담	2	0	4	0	6
총합계	182	155	145	143	625

더욱이 화상 경마장에서의 사건·사고로 인해 경찰에 이첩되거나 퇴장조치된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108건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9건에서 작년에는 4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말 기준으로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화상경마장 경찰 이첩, 퇴장조치 및 입장제한 현황>

연 도	객장소란	암표	절도	직원폭언	추행	폭행	총합계
2016	14	0	0	0	0	5	19
2017	13	0	0	0	0	9	22
2018	16	1	1	2	2	18	40
2019(9월말까지)	8	1	1	1	1	15	27
총합계	51	2	2	3	3	47	108

이만희 의원은 “화상경마장이 지역의 최일선 지사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 고객을 대하는 곳이면서도 다양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객장 안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입건되는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라며,

“화상경마장에서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들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